

목어

욕망과 서원

불교에서는 "욕망을 끊어라!"라고 한다. 도교에서는 "욕망을 즐기라!"고 한다. 맹자는 "마음 기르는데는 욕망이 적은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인간들은 욕망의 부추김에 따라 행위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히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합리화, 자기가 만든 세상에 고치를 짓고 들어앉는 것일 수도 있다.

서원을 지니지 않은 채 욕망만을 없앤다면 현실을 꿈 같은 것으로 여기며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성태웅(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대화하는 종회 만들겠어요”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일문일답

조계종 새 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화하는 종회 구현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면 시간 갖고 논의” “청사 신축 적극 후원”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내년엔 꼭 성사되길”

티베트 동북아대사 자를린포체

“김대중 대통령과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동료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40여년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분으로,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나라(중국)의 말을 듣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재경 기자

자를린포체는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과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시 김 대통령 앞으로 축하서한을 보냈지만 한국정부가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조차 없고 있는 것은 같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예의 부족”이라고 꼬집고, 약속대로 내년 방문마저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경 기자

따라오라고 하는 방식은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 시간을 두고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화합이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종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할 것이다.

“사면 실시를 위한 종회 개편안이 종회에 계류중이다. 사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면 시간 갖고 논의”

“청사 신축 적극 후원”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가운데), 오른쪽이 후보등록을 철회해 양보의 마대를 발휘한 수석부회장 청화스님, 왼쪽이 차석부회장 명진스님.

선의의 경쟁으로 이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단의 이익보다는 모임별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언론에서 계파를 나눠 대립관계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친소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소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정치권을 다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화를 잘 하도록 해주는 심부름꾼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내가 그 심부름을 하겠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5시간 마라톤협상 만장일치 선출 회의장 박수가득

의장 법스님이 종회의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전 같았으면 투표에 들어갔을 상황이었다. 9선의 최다선 의원인 종화스님이 발언을 신청했다.

하기 위해서는 호혜공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의장을 모셨으면 좋겠다”며 만장일치로 의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와 종책연구모임을 대표해 장주, 원행 영배, 장운, 성관, 법안 스님이 4층 회의실에 모였다.

마침내 두 후보측이 협상을 벌인 지 5시간여만에 청화스님이 종대 발언을 했다. “선거의 속성상 이후 서로 감정의 골이 패이기 마련이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후보등록을 철회한다.”

“문화주권 상실” 쫓기대회 등 비난여론

달라이 라마 11월 방한불가 이후

준비위 “유럽투어 등 국제연대 강화”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과 관련, ‘연내 불가, 내년 재검토’라는 묘수를 내놓자 각계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2천여명의 불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쫓기대회’를 갖고 이경진 외교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굴욕적인 대중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조계종 종회부의장 청화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원불교 사회개혁교단 김현 교무, 문대광 목사,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 등 종교·시민단체대표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방한준비위는 정부에 대해 “세계평화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로거리에서 자전거행과 투투 대주교, 체코의 하벨 대통령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및 국제적 한나라당을 비롯 실천불교전국승

가회,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전국국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혁교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연연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종교·시민단체들도 10월31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을 거듭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정부가 내년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는 시민들과 외국의 비난을 무마하려는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정부의 입장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이달 중순부터 12월10일까지 대표단과 순례단을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유럽 10개국을 순회하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 성사를 위한 국제투어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투투 대주교, 체코의 하벨 대통령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및 국제적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진행된 직후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10월 29일 조계사에서 불자·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인 종교·정치지도자 99명을 대상으로 방한 허용 촉구 연대서명을 추진하고, 영화 ‘쿤돈 보기운동’을 매개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알리기 캠페인, 티베트 불교문화 전국 순회강연회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중국 무역에서의 불이익,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한 ‘연내 불가, 내년 검토’라는 공여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다수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도사려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는 기본 인식하에, 내년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불교계와) 방문 시기와 조건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면서 이를 검토할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정부의 내년 방한 검토 약속을 국민들이 믿지 않는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성사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3Free 핸드폰 광고. CE마크 획득, 핸드프리, 충전프리, 고정프리. 차량 무선 핸드프리 3Free 탄생!!